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MIND VIRUS

가제 : 마인드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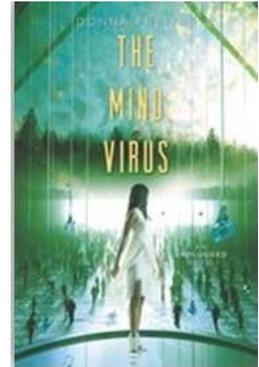
저자 : Donna Freitas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SF



\* 네덜란드,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Unplugged』, 『The Body Market』에 이어지는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현실 세상과 분리된 가상 세상, 어릴 때부터 더 안전한 가상 공간에서 살아온 소녀 스카일러 크루즈를 주인공으로 두 세상에서 펼쳐지는 암울한 사건들과 음모, 배신을 그린 3부작 시리즈가 완성됐다. ‘앱 월드(App World)’라는 가상의 세계에 다섯 살 때부터 ‘접속’된 상태로 성장한 스카일러는 1권 『Unplugged』에서 현실에 남은 생모와 여동생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2권 『The Body Market』에서 생각지도 못한 잔인한 현실 세계의 실상과 가족들의 배신에 몸서리를 친다. 마지막 이야기인 이 3권에서 스카일러는 무책임한 여동생이 저지른 악행으로 발생한 충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몸을 던진다. M. T. 앤더슨(M. T. Anderson)의 『Feed』, 스캇 웨스터펠드(Scott Westerfeld)의 『Uglies』의 뒤를 잇는 스타 넘치는 이 SF 시리즈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카스 모건(Kass Morgan)으로부터 “오싹하고 중독적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 세상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인구 대부분이 목숨을 잃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너도나도 앱 월드로 달아났다. 위험천만한 현실 세상과 달리 안전하고 원하는 것을 뭐든 할 수 있는 이 가상 세계에서 스카일러는 제2의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런 편안한 생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없애지는 못했다. 1권에서는 접속, 비접속 상태를 선택하여 두 세상을 오갈 수 있었던 자유가 총리의 갑작스러운 가상세계 폐쇄 발표로 모두 사라지면서 스카일러가 겪는 혼란이 그려졌다. 총리의 아들, 레인이 현실 세상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스카일러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다시 가상 세계를 이용해온 사람들이 누리던 서비스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직접 레인을 구하러 뛰어들이지만 그 일을 원치 않는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크고 작은 방해로 인해 스카일러는 큰 위험에 처한다. 한 번 뛰어든 이상, 레인을 구하지 못하면 스카일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펼쳐지는 위험천만한 모험은 레인을 구해내는 것으로 평화롭게 끝나는 듯했으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스카일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진짜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올해 3월 발표된 2권에서는 스카일러의 여동생 주드의 냉혹한 배신과 앵 월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납치 사건의 전말이 펼쳐졌다. 인간 사냥꾼 키트를 고용하여 앵 월드에 갇힌 사람들을 물건처럼 팔아 치우는 일을 사업처럼 진행해온 주드를 막기 위해 스카일러는 그 손아귀에서 겨우 빠져나가 동생을 직접 고발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그 사이 스카일러를 잡으러 온 키트와의 사이에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두 사람은 사람을 사고파는 거래를 막기 위해 마침내 손을 잡는다. 이어지는 3권에서는 키트와의 관계가 끝나버린 스카일러가 한동안 폐쇄되어 있던 현실 세상과 앵 월드 사이의 문을 겨우 다시 여는 데까지 성공하지만 어느 쪽에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다 다시 한 번 큰 위험에 휩싸이는 이야기를 다룬다. 양쪽 세상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를 모두가 고대하는 줄 알았건만, 가상 세계에 갇혀 있다 현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침입자 취급을 받고 현실 세상에 살던 사람들과 큰 갈등을 맞는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에 불과했던 싸움이 걸잡을 수 없는 긴장감으로 피어 오른 시점에 아직 앵 월드와의 접촉이 유지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한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포만 더해가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죽음은 주드가 저지른 일로 인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시작된 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일부러 퍼뜨려진 이 바이러스는 앵 월드 전체, 그 속에 남아 있는 인구 모두를 광그리 멸종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인 주드뿐이고, 스카일러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만 한다. 두 자매는 오랫동안 소원해진 관계를 극복하고 이 무서운 마인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앵 월드가 아예 존재조차 없었던 망각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만 한다.

#### <저자 소개>

돈나 프레이타스(Donna Freitas)는 소설과 비소설을 쓰는 작가로 대학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YA 시리즈 소설 『Unplugged』와 『The Possibilities of Sainthood』, 『This Gorgeous Game』, 『The Survival Kit』, 『Gold Medal Summer』 등이 있다.

제목 : GATHER THE DAUGHTERS

가제 : 모여라 딸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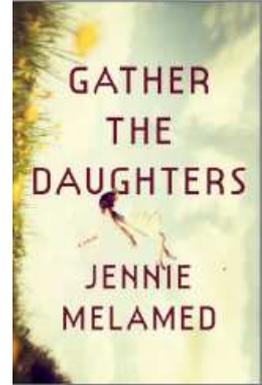
저자 : Jennie Melamed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7년 7월 2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SF



\* 브라질, 헝가리, 포르투갈 판권 계약 체결

\* 「뉴욕 매거진」의 저명한 문학 평론가 보리스 카치카(*Boris kachka*) 선정, '7월 최고의 도서'

\*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데뷔작, 세밀하게 그려진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포함된 잔인한 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셸리 잭슨, 마가렛 애트우드의 뒤를 이을 만한 엄청난 작가" - 퍼블리셔스 위클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은 어떤 수준까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 가끔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 세상과 거의 단절된 아마존의 원시 부족이나 정해진 곳에 스스로 갇힌 채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그 속에서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평범한' 삶이다. 아무리 익숙해진 삶이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뭔가 다른 삶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역치 혹은 한계가 존재할까? 세상이 모두 불타버리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며 섬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데뷔 소설에서 작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미국과 가까운 작은 섬, 대륙 전체를 집어삼킨 화재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후 살 곳을 찾아나선 열 명의 가장과 그들의 가족들이 맨 처음 도착한 후 이곳에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됐다. 철저한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 커서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손자, 손녀가 출산을 하면 효용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미래 세대가 살 곳을 내어주어야 한다. 생식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뛰놀 수 있지만 사춘기의 첫 징후, 신체의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는 스무 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곳에서 십대가 될 때까지 살아온 바네사, 아만다, 케이틀린, 제이니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우연히 이 폐쇄된 사회가 끔찍 감추어온 비밀의 단서를 손에 쥐면서 모든 것에 의혹을 품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런 삶이 다는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온 이상한 의식들과 규칙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뿌리내린 순간 잠잠했던 섬 마을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방랑자들'이라 불리는 몇몇 남성들이 전부다. 특별히 선발된 이들은 모두 불타버렸다고 알려진 본토로 '목숨을 걸고' 찾아가 폐허와 쓰레기더미를 뒤져 쓸 만한 자원을 가지고 섬으로 돌아온다. 열다섯 살이지만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아만다,

여기저기서 입 소문을 타고 전해지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에 강렬한 호기심을 놓지 못하는 열세 살 바네사, 맨 처음 이 섬에 정착한 1세대의 자녀로 아기 때 섬에 처음 들어온 케이틀린, 열일곱 살이지만 2차 성징이 시작되면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사회 규칙이 너무 싫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성장을 스스로 지연시키며 살아온 제이니, 네 소녀에게 이 억압적인 섬 마을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만 하는 유일한 세상이었다. 어른들은 섬 바깥으로 탈출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방랑자’ 중 한 사람인 바네사는 폐허 속에서 발견된 세상의 책들을 게걸스럽게 읽고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는다. 한편, 결혼이 견디기 힘든 가족들과의 삶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을 하고도 큰 불만이 없었던 아만다는 자신의 뱃속에 생긴 아기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처럼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충격에 빠진다. 섬의 1세대 조상으로 거의 신격화되는 아버지가 실제로는 주먹을 휘두르는 알코올 중독자라 온 몸에 명이 가실 날이 없는 케이틀린과 여자가 남자들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어릴 때부터 큰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 제이니 역시 어떻게든 이 좁고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고픈 생각뿐이다. 그런데 어느 여름, 섬의 가장 큰 행사인 ‘성인식’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 자유로운 여름을 만끽하던 케이틀린은 충격적인 단서를 포착한다. 너무나 낯설고 끔찍한 진실에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다가서버린 케이틀린은 나머지 소녀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섬의 이상한 규칙에 숨막혀 하던 제이니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선택된 자들 외에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저 해변 너머, 섬 바깥에 더 크고 멀쩡한 사회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정말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은 없는 것일까? 네 소녀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잔인한 인간의 욕망, 감당하기 힘든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 <저자 소개>

제니 멜라메드(Jennie Melamed)는 정신의학과 간호사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왔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인류학, 생물학, 아동 학대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제목 : THE SUMMER OF IMPOSSIBLE THINGS

가제 : 불가능한 일들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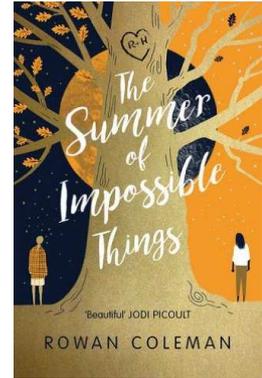
저자 : Rowan Coleman

출판사: Ebury Press

발행일: 2017년 6월 29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SF, 로맨스



- \* “가상의 시간여행 이야기는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지만, 가족과 슬픔, 구원에 관한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킨 이 소설에서 작가는 그 성과를 당당히 거두었다.”- 「선데이 익스프레스 S 매거진」
- \* “놀랍도록 깊고 믿음에 가는 이야기로 독자를 완전히 압도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하는 소설”- 「더 선(The Sun)」의 「패블러스 매거진(Fabulous Magazine)」

시간 여행은 먼 옛날 하늘을 마음껏 날기를 소망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가진 희망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준다. 어쩌면 기술의 발달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초능력이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다른 가능성보다 더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시간 여행을 바랄까? 그저 과거가 궁금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느 시간과 공간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30년 넘게 과거의 특정 시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를 지켜본 루나에게 시간 여행은 그런 호기심의 의미를 훌쩍 넘어서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엄마의 인생,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옛 기억의 진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인 시간 여행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되었을 때, 루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거나 아예 소멸되어 버릴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히 발을 내딛는다. 2007년 조용하고 평화로운 영국에서 1977년 디스코와 뜨거운 열기로 휩싸인 미국 브록클린의 작은 마을로의 시간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루나가 여동생 피아와 함께 미국 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엄마가 남긴 동영상 때문이었다. 익숙한 정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비디오를 찍으며 죽음을 준비했을 엄마 생각에 두 자매의 가슴이 또 다시 슬픔으로 가득 차오르던 그때, 엄마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 놓았다. 루나의 친부가 지금까지 아버지로 믿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이었다. 엄마 입에서 나온 말로는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 루나는 어릴 때부터 어렵풋이 이 가족에게 자신이 완전한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엄마 쪽도, 아빠 쪽도 루나처럼 새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친척들을 만나도 각자가 기억하는 가장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이런 눈 색깔을 가진 건 루나가 유일했다. 모두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가족들 속에서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물에 뜬 기름처럼 느꼈던 시간 동안 혼자 속앓이를 해왔던 탓인지, 루나는 엄마의 고백이 충격적이기보다 어쩐지 속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다. 중요한 건 루나가 지금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 엄마를 30년간 따라다닌 과거의 악몽이 자신의 태어난 무렵에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왜 엄마는 태어나 어른이 될 때까지 줄곧 살았던

고향을 버리고 영국으로 도망을 와야 했을까? 그렇게 먼 곳까지 달아나고도 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만 했을까? 동영상 속의 어머니는 두 딸에게 그곳으로, 어머니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브룩클린의 시간 속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달라고, 마치 옆에서 누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카메라 마이크에다 속삭였다. 어딘지 이상한 부탁 같았지만, 두 딸은 아버지 몰래 미국으로 향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십 년째 방치된, 어머니가 절반의 소유권을 가진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두 자매가 찾아 나선 건 어머니의 잃어버린 삶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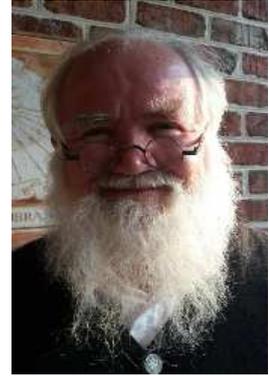
아주 어릴 때 브룩클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조금 남아 있는 루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가 싶다가 눈을 뜨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시간과 공간에 와 있는 묘한 경험이었다. 그저 환각이나 어지럼증이라고 무시했던 이 현상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한층 더 선명해졌다. 루나는 이것이 시간 여행이고, 자신이 어머니가 젊고 활기찬 여성이던 시절, 1977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온 미국을 휩쓴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가 어머니가 살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한창 촬영 중이고, 사진작가로 미국에 온 아빠와 만난 것도 그 세트장이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 보는 희한한 경험을 하던 중, 루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로 기록된 1977년 뉴욕 대정전 사태가 일어난 1977년 7월 13일 밤, 어머니가 끔찍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수십 년간 어머니는 물론 루나와 피아, 아빠까지 온 가족을 고통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한 루나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순간을 어머니가 피하도록 손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러려면 큰 결심을 해야 했다. 이미 여러 차례 시간 여행을 하면서, 과거로 간 자신이 조금만 무슨 변화를 일으켜도 현실로 돌아왔을 때 바뀐 것들이 발견되어 놀란 적이 많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 날,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면 루나는 아예 어머니의 딸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개입하면 돌아올 현실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루나는 어머니의 인생을 지켜주기로 마음 먹고 그 운명의 날로 향한다.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한 루나에게 또 한 가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다. 과거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정전 사태가 벌어질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루나는 차근차근 어머니를 구할 준비를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을 흘러간다. 루나의 희생은 바랐던 결과로 이어질까? 가슴 저린 사랑과 한 가족을 뒤흔든 비극, 고귀한 희생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 <저자 소개>

로완 콜먼(Rowan Coleman)은 2012년 ‘로맨스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로맨스 소설로, 로맨틱 소설가협회로부터 2013년 ‘올해의 로맨틱 소설’ 뽑힌 『Runaway Wife』를 쓴 작가다. 그 밖에도 『The Accidental Mother』,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Memory Book』 등 열두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 : A KNIFE IN THE FOG  
가제 : 안개에 가려진 칼  
저자 : Bradley Harper  
출판사: Seventh Street Press f  
발행일: 2018년 가을  
분량 : -  
장르 : 소설/ 추리



- \*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속 탐정,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아서 코난 도일과 영국의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에 관한 흥미진진한 추리 소설
- \* 1800년대 후반 영국 사회와 정치, 잭 더 리퍼의 연쇄살인이 벌어진 화이트채플 지역의 지리적 특성까지 살살이 연구한 법의학 전문가이자 셜록 홈즈 시리즈의 평생 팬이 쓴 2부작 데뷔 소설

최초의 완전 범죄, 세계 6대 살인마 등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희대의 살인마’ 잭 더 리퍼는 1888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명의 매춘부를 살해했다. 그가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런던 동부의 화이트채플은 물론 영국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고 간 이유는 살해 수법이 너무 나도 잔인했기 때문이다. 죽은 채 발견된 여성들은 목과 복부 등 온 몸의 장기가 파헤쳐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10대 시절부터 셜록 홈즈 시리즈에 푹 빠진 채 평생을 이 유명한 소설 속 탐정과 그를 탄생시킨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팬으로 살아온 저자는 37년간 육군 병리학자로 일한 후 은퇴하자마자 코난 도일의 일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의사이자 소설가였던 코난 도일이 『주홍빛 연구』를 통해 세상에 셜록 홈즈라는 독특한 탐정을 소개한 시기는 1886년 4월, 셜록 홈즈의 두 번째 이야기 『네 명의 서명』이 출판된 시기는 1890년 2월로 무려 4년여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에 주목한 작가는 그 유명한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그 공백기의 중간쯤인 1888년에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영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과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한 시대에 공존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코난 도일이 직접 셜록 홈즈처럼 활약하며 잭 더 리퍼를 추적하는 흥미로운 가상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기발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실존 인물인 범죄자와 소설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야기는 잭 더 리퍼가 세 명의 여성을 살해한 1988년 9월 말에 시작된다. 어느 때와 같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던 코난 도일은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 낯선 남자와 마주한다. 남자가 건넨 봉투를 열자, 2주치 수입에 해당하는 10 파운드 지폐와 함께 두꺼운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발신자는 전 영국 수상인 윌리엄 글래드스톤이었다.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서 직접 만나고 싶다는 짤막한 내용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지만, 빠듯한 살림에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라 10 파운드라는 거금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기에 코난 도일은 그 자리에서 전 수상을 찾아 가겠노라 약속한다. 어떤 일로 상의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자신이 의사니 당연히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려는 것이겠거니, 짐작했지만 하고 많은 의사 중에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는지 의아한 것

도 사실이었다. 일단 가보기로 결심한 코난 도일은, 런던에 도착한 직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런던까지 불려온 건 의사로서가 아닌, 자신이 처음으로 써서 혈값에 출판된 데뷔 소설 속 주인공 셜록 홈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수상의 개인 비서라는 윌킨스 씨는 코난 도일에게 『주홍빛 연구』를 아주 인상 깊게 읽었다고 이야기하며, 단서가 잡히지 않는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는 소설 속 탐정처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깜짝 놀란 코난 도일은 자신은 가상의 인물인 셜록 홈즈 같은 비상한 두뇌나 날카로운 관찰력,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단서에서 큰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없다며 거절하고 대신 은사인 조셉 벨 교수가 책임자라고 소개한다. 윌킨스 씨는 코난 도일의 제안대로 벨 교수에게도 수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겠지만 두 사람이 팀을 이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교수님이 절대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런던까지 와서 살인사건 수사에 참여할 리 없다는 생각에 코난 도일은 선뜻 그러겠다고 약속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그의 오랜 멘토이자 존경하는 선생님인 벨 교수는 흔쾌히 런던으로 왔고 페미니스트인 소설가 마가릿 하크니스까지 동원되어 세 사람은 살인마 잭 더 리퍼를 잡기 위한 수사 컨설턴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잭 더 리퍼가 다섯 명을 죽이고 갑자기 살인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학 수사는커녕 지문도 조사하지 못할 만큼 수사 기법이 낙후된 그 시기에 요리조리 정체를 숨겼던 그의 정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소설 속에서 코난 도일은 이 영악한 살인마의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까? 수사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은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실제 코난 도일의 자서전 혹은 역사적 연구 결과처럼 느껴질 만큼 생생하고 흥미로운 사건들이 1부에 이어 2부 『여왕의 작전(THE QUEEN'S GAMBIT)』까지 이어진다.

#### <저자 소개>

브래들리 하퍼(Bradley Harper)는 영국 육군 소속 병리학자로 근무하다 은퇴한 후 평생 팬이었던 셜록 홈즈와 아서 코난 도일에 관한 연구에 돌입했다. 200회 이상 직접 부검을 실시하고 범죄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NON- FICTION**

제목 : DEATH IN THE AIR

가제 : 공기의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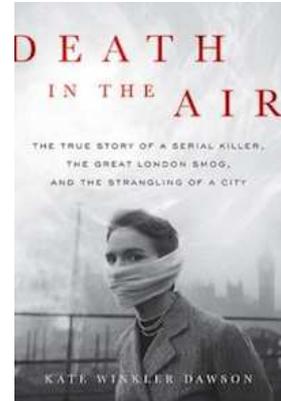
저자 : Kate Winkler Dawson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7년 10월 17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역사(범죄)



- \* **“1952년의 런던 스모그와 뿌연 먼지를 살인 망토로 활용한 연쇄 살인범 존 레지날드 크리스티의 이야기를 훌륭하게 조사한 매력적이고 흡입력 있는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The Monster of Florence**」의 저자 더글러스 프레스턴
- \* **“저자는 서스펜스와 이야기의 탄력 조절, 세부적인 것까지 볼 줄 아는 예리한 눈을 가진 타고난 스토리텔러다.”** – 풀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겸 「**High Noon**」의 저자 글렌 프랭켈

1952년, 런던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모두를 경악에 떨게 한 사건이 두 건이나 벌어졌다. 하나는 수 개월에 걸쳐 무려 1만 2,000여 명의 숨을 거두어들이는 장기적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간에 최소 일곱 명의 여성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매장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다. 역사상 최고의 환경 재난으로 꼽히는 런던 스모그,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옇게 흐려진 공기를 보호막 삼아 악의적인 행각을 자행한 온갖 범죄자들 중에서도 최악의 살인마로 기록된 존 레지날드 크리스티가 바로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이다.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이자 저널리즘 교수인 저자는 이 첫 번째 저서에서 전쟁 후 재기에 힘쓰던 영국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두 사건을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과 광범위한 인터뷰, 세밀한 조사를 토대로 정리했다.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소설처럼 흡입력 있는 이야기는 실제 역사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2차 대전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1952년, 런던은 식량 배급제가 그대로 운영되고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전쟁 빚을 감당해야 했던 영국은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미국에 수출하고 자국민들은 그보다 질이 훨씬 떨어지고 값이 저렴한 갈탄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겨울이 찾아오고 기온이 떨어지자 버스와 트럭, 자동차 등 교통수단은 물론 각 가정에서 난방이 시작되면서 갈탄을 태운 연기가 대기 중에 마구 방출됐다. 원래 안개가 유난히 짙게, 자주 형성되는 런던 날씨지만 그 해의 공기는 뭔가 달랐다. 노르스름하고 필름처럼 짙은 안개가 5일간 사라지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했던 이 거대한 안개가 겨우 조금 걷힌 바로 다음 주에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수 개월에 걸쳐 7,000- 8,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나중에야 이것이 안개가 아닌, 갈탄을 태우면서 나온 미세한 오염물질 덩어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스모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같은 해 겨울, 노팅힐에서는 여성들만 연이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연립주택에 살던 존 레지널드 크리스티라는 남자요, 그는 기관지염을 앓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치료법을 알려 주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으면 강간한 후 목을 졸라 죽였다. 자신의 아내를 비롯해 최소 일곱 명의 여성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살인마의 손에 목숨을 잃고 정원과 집안 부엌, 거실 바닥 아래에 잔인하게 매장됐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혐의를 부인한 이 살인마로 인해 죄 없는 남성이 교수형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저자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매캐한 오염 물질이 런던의 하늘을 뒤덮었던 시기에 무언가에 흠린 듯 벌어진 이 두 건의 사건을 상세히 파헤치고 영국의 사형제 폐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법률제정 등 이후 영국과 전 세계적에 남은 사건의 여파 혹은 유산까지 추적한다.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비극을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유익한 책이다.

#### <목차>

시작하면서: 전율

1장. 고기압

2장. 창문 너머로

3장. 억제

4장. 붙들린 상태

5장. 안개 속 시체들

6장. 부검

7장. 질식사

8장. 난로와 집

9장. 압축

10장. 매장

11장. 대관식과 교수형

12장. 스모그와 살인마가 남긴 것

#### <저자 소개>

케이트 윈클러 도슨(Kate Winkler Dawson)은 텍사스 대학교 저널리즘 교수이자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이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뉴욕타임즈와 ABC 뉴스 라디오, 나이트라인 등을 통해 방영됐다.

제목 : THE STRANGE ORDER OF THINGS

가제 : 만물의 희한한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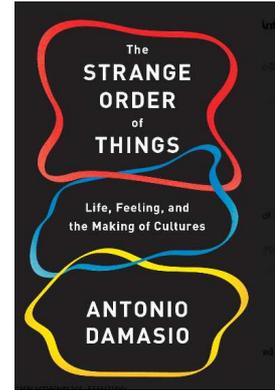
저자 : Antonio Damasio

출판사: Pantheon

발행일: 2018년 2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과학



**\*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저명한 신경과학자가 화학,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생명과 인간의 감정, 마음, 문화의 기원과 인간의 특성**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극명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무엇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큰 우위를 차지하고 가장 놀라운 성과를 이루도록 이끌었을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독특한 삶과 방대한 문화의 뿌리를 추적한다. 살아 있는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해 거대한 문명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까지 유구한 세월을 거쳐 발달하고 다음 세대로 전해진 인간만의 특성을 쫓아가면서 저자는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분에서 먼 옛날 고대 단세포 생물을 비롯한 다른 생명의 형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찾아낸다. 바로 항상성의 유지, 즉 생존은 물론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생물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공통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생명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현이 조절되는 유전자를 비롯해 생명 유지라는 강력한 목표를 향해 변화하고 발달해온 인간의 특성을 하나하나 짚어본 특별한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총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었던 바탕은 감정과 기분, 마음에 있다고 설명한다. 예술적인 성과, 철학적인 고찰, 도덕 체계, 종교적인 믿음, 정의, 통치 체계, 경제적인 제도, 기술, 과학까지 '문화'로 통칭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물은 뛰어난 지능과 밀도 높은 사회성과 더불어 아이디어, 생각, 감정과 기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 그리고 결심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계기 혹은 동기가 현재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문화의 시초인 것이다. 뛰어난 기술과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결합된 의학이 등장한 것도 신체 질병부터 정신적인 충격, 마음의 병으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부터 시작됐다. 고통을 줄일 방법을 찾으려는 몸부림과 끈질긴 노력이 의학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저자는 문화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전체적인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수한 모순이 발견된다. 갖가지 고통에 괴로워하고,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걸에 생존을 의존하고,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으로 모자라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박애주의자들과 성인이 있는가 하면 범죄자, '짐승'이

라 일컬어지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고 예술가, 과학자들과 함께 환경과 다른 인간을 망가뜨리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인간이라는 공통된 종에서 이와 같은 정반대되는 차이가 나타날까? 저자는 인간이 지닌 능력과 잠재력이 어떤 방향으로 뻗어 나오는가를 좌우하는 것 또한 감정과 기분, 마음이 언어, 의식, 기억, 복잡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창의적인 지능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복합적인 관계,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희한한 질서'가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원천이자 이 책의 주제이다. 저자는 생물학적인 실체로서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복잡한 행동과 문화의 시초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흥미진진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 <목차>

##### 머리말

##### 1부. 생명과 생명의 조절(항상성 유지)

1. 인간의 생존 조건
2. 차이 나는 영역
3. 항상성의 다양성
4. 하나의 세포에서 신경계와 마음까지

##### 2부. 문화적인 마음의 구성

5. 마음의 기원
6. 마음의 확대
7. 영향
8. 감정의 구조
9. 의식

##### 3부. 문화적인 생각의 기능

10. 문화의 영역에서
11. 의학, 불멸성, 알고리즘
12. 오늘날 인간의 생존 조건
13. 만물의 희한한 질서

#### <저자 소개>

안토니오 다마시오(Antonio Damasio)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 대학 뇌·창의력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미국 국립 의학회, 예술학회, 과학회 회원이며 유럽 과학회, 예술학회 회원이다. 소르본 대학교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수여 받았다. 저서로는 『Descartes' Error』, 『The Feeling of What Happens』, 『Looking for Spinoza』 등이 있다.

제목 : THE REGENERATIVE BUSINESS

가제 : 사업의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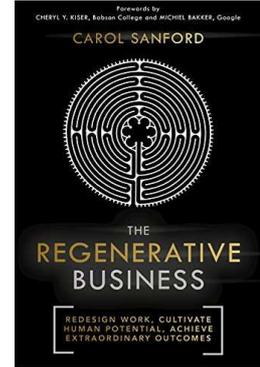
저자 : Carol Sanford

출판사: Nicholas Brealey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영



- \* “교육 전문가의 정확한 가이드와 슬기로운 지혜, 통찰력이 결합되어 더 나은 성과와 영향력, 장기적인 가치 창출 방법을 알려주는 책” -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 비즈니스 상(*Oslo Business for Peace Award*) 수상자, 의 저자 윌리엄 로젠 로젠츠바이크
- \* “저자의 오랜 경력뿐만 아니라 심리학, 생산성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레베카 M. 헨더슨

기존에 있던 기술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대비되는 ‘파괴적 혁신’은 최근 산업계 전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제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비교적 수명이 짧은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시장에 내보내고 빠른 속도로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파괴적 혁신의 주된 목표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번덕스러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푸념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계속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현 시대에 지속적인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기업은 변화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하고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의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특정 산업계와 시장을 좌우하는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 발달한 사회와 생태계까지 전에 없던 모습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성도 혁신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40년 이상 기업들이 운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필요한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온 저자는 이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깨우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새로운 정보와 필요한 기술, 급속히 바뀌는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과 능력을 키우고 깨우친 것을 과감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산업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혁신을 추구한다. 혁신의 필요성은 이미 확고한 원칙이 되었지만, 그 방식은 최종 제품과 서비스를 바꾸는 것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그러나 혁신의 초점은 ‘결과물’이 아닌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과 만드는 ‘사람’에게로 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경영과 생산, 유통, 소비자 관리, 마케팅, 납품 시스템, 투자 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전 부문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에 저자는 한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사업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그에 맞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끝없는 변화로 뒤따르

는 조직 내부의 불안정성과 불편한 공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억누르는 대신 익숙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창의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적절한 보상,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업무 설계 방식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 넘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이 모두 성공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라

- 1장. 교육을 넘어 사람을 발전시켜라
- 2장. 업무 설계 방식의 진화
- 3장.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하는 업무 설계
- 4장. 업무 처리 방식에 혁신을 불어 넣어라
- 5장. 서른 가지 해로운 업무 방식 없애기
- 6장. 발전하는 조직으로 설계하는 법
- 7장. 1단계 - 전략적인 파괴
- 8장. 2단계 - 용기 있는 문화
- 9장. 3단계 - 사람과 사고 과정의 발전
- 10장. 4단계 - 사업과 업무 시스템
- 11장. 5단계 - 업무 구조
- 12장. 맺음말: 재탄생의 패러다임

<저자 소개>

캐롤 샌포드(Carol Sanford)는 40년간 구글, 듀콘, 인테리 피앤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 일을 해 왔다. 현재 밥슨 칼리지에서 사회혁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목 : FALL DOWN 7 TIMES GET UP 8

가제 :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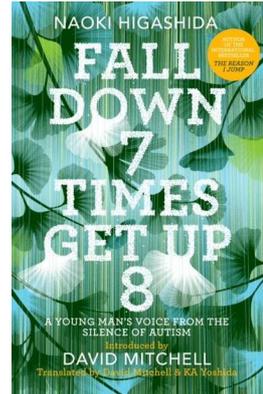
저자 : (원작) Naoki Higashida (번역) KA Yoshida, David Mitchell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자폐증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에게 자폐의 그늘 속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 커커스 리뷰
- \* 말은 못하지만 글로 소통하는 일본인 청년이 베스트셀러 『The Reason I Jump』에 이어 두 번째로 완성한 에세이

다섯 살 때 ‘중증 비언어성 자폐증’ 진단을 받은 꼬마가 어느 날부터 알파벳이 죽 늘어선 키보드를 두드려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밖에 모르는 이 꼬마는 알파벳으로 히라가나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서 그렇게 글로 말을 하고, 시도 쓰고, 짧은 이야기를 쓰기도 했다. 그 주인공인 나오키 히가시다가 열세 살 때 자폐증을 앓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한 에세이 『The Reason I Jump』는 2007년 일본에서 출판된 뒤 우연히 어느 영국인 소설가의 눈에 띄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그에게는 다섯 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중증 비언어성 자폐증 진단을 받고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계속 찾던 중 아내가 모국에서 화제가 된 나오키의 에세이를 발견한 것이다. 자신의 아이와 같은 나이에 처음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점, 말을 못하는 아이가 유려한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밝힌 것, 유튜브와 각종 영상 자료로 찾아본 나오키는 그런 놀라운 글 솜씨와 전혀 일치되지 않는 영락없는 자폐아의 모습이라는 점에 크게 놀란 소설가는 나오키의 첫 번째 에세이를 아내와 함께 영어로 번역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나오키는 이제 스물네 살 청년이 되어 성인이 된 자폐증 환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에세이로 완성했다.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글로만 소통할 수 있지만, 자폐증 환자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감정의 깊이는 어릴 때 쓴 글처럼 청년 나오키가 쓴 글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두 번째로 그의 에세이를 번역한 소설가 데이빗 미첼이 이 번역서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나오키가 글을 쓰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끊임없이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자극이 머릿속에서 솟아나 한 문장을 채 마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방을 빠른 걸음으로 건너나 심지어 어딘가로 달려가기도 한다. 얇은 채로 창문 밖을 한참 동안 응시하는 일도 빈번하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엄청난 노력 끝에 완성한 나오키의 글에는 한탄이나 괴로운 심정이 가득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자신감과 세상에 대한 흥미,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연과 수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설명하고, 자신을 비롯한 자폐 환자들은 사람

들의 연민이나 동정을 바라지 않으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최대한 바깥 세상과 교류하며, 폐쇄된 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기를 꿈꾼다고 설명한다. 신경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자폐증 환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최대한 타인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픈 열망은 똑같다는 심정도 전한다.

학교 생활, 가족들과의 관계, 여행에서 느낀 엄청난 희열과 기쁨,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할 말하기의 어려움에 관한 설명과 함께 나오키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얼마나 이상하게 비춰질 것인지 인지한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장애’ 그 자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때가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나오키는 다부진 다짐은 글 중간중간 등장하는 단편 소설과 함께 이 꿈 많고 유머 감각까지 갖춘 쾌활한 청년의 놀라운 가능성을 깨닫게 한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 주는 감동적인 에세이다.

#### <목차>

서문

1부. 여기에서 본 광경

2부. 시간과 인생 / ‘빅 이슈’ 알파벳 인터뷰 (1편: A부터 M까지)

3부. 말풍선

4부. 학교 / 여행

5부. 내면의 날씨

6부. 조심스럽게 / ‘빅 이슈’ 알파벳 인터뷰 (1편: N부터 Z까지)

7부. 떠나다

8부. 집

맺음말

#### <저자 소개>

나오키 히가시다(Naoki Higashida)는 1992년 생으로 다섯 살에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글자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시와 단편을 쓰기 시작했다. 열세 살에 쓴 에세이 『The Reason I Jump』는 2007년 일본에서 출판된 후 2013년에 영어로 번역되어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이 책을 시작으로 어린이 도서, 그림책, 시, 에세이를 지속적으로 썼다. 2014년에는 저자의 삶을 다룬 일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상을 받았다.

데이빗 미첼(David Mitchell)은 『Cloud Atlas』, 『The Bone Clocks』, 『Slade House』 등 총 일곱 권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이다. 맨부커 상 수상 후보에 두 차례 선정됐다.

KA 요시다(KA Yoshida)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노트르담 세이신 대학교에서 영시를 전공했다. 데이빗 미첼과 함께 현재 아일랜드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

제목: LIVE WIRES

가제: 음악은 전기를 타고

(부제: 전자 음악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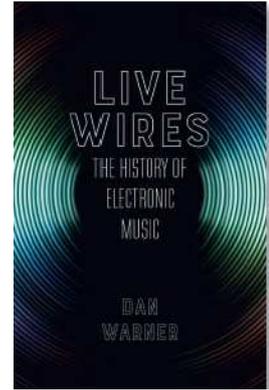
저자: Daniel Warner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18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역사(음악)



- \* 테이프 녹음기부터 전자 회로, 컴퓨터, 마이크, 턴테이블까지 전자 음악계의 다섯 가지 핵심 기술의 발달로 알아보는 전자 음악의 탄생과 변천사
- \* 전자 음악을 발전시킨 뛰어난 음악가, 엔지니어, 발명가와 다양한 작곡가, 프로듀서, 음악가들의 업적과 이야기

우리는 전자 기술이 없었던 때를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스마트폰, 가전 등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온갖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 또한 전자음, 전자 음악이 이미 오래 전부터 큰 몫을 차지한다. 직접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소리를 듣고, 한 번 연주된 곳은 연주자와 관객만 기억할 뿐 그대로 흘러가버렸던 시절을 지나, 그 흘러가는 음악과 노래를 마치 종이에 글을 쓰듯 기록해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작은 휴대용 장비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듣고 싶은 노래와 음악을 찾아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어떤 기술과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전자 기술과 전자 음악이 있다는 사실이다. 작곡가이자 전자 음악가, 음악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1956년대만 해도 낯선 소리로 여겨져 소수만 알고 들었던 전자 음악이 음악 시장은 물론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기까지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를 관련 기술과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토대로 차근차근 추적한다.

1956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금지된 행성(Forbidden Planet)>은 이후 스타트렉이나 스타워즈와 같은 우주 어드벤처 장르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영화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사람들은 배경음악으로 등장한 ‘전자음’에도 크게 주목했다. 외계 행성과 로봇, 낯선 문명과의 전투를 다룬 다소 음산한 분위기의 영화 장면마다 깔린 이 전자음은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상상력을 한껏 자극했다. 같은 해, 독일의 작곡가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은 쾰른의 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소리의 전달 원리를 토대로 새로운 음악 장르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소리의 파동이 진동이 빠를수록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 실험으로 확인한 슈톡하우젠은 <젊은이들의 노래>라는 곡에 이 기술을 접목시키고, 몇 년 후 발표한 ‘접촉(contact)’라는 뜻을 가진 ‘Kontakte’는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한 전자 음악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곡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당시만해도 소수의 장르였던 전자 음악이 이제는 다양한 음악 장르는 물론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일반적인 소

리를 형성하고, 음악을 예술의 영역에서 누구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의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저자는 홀로 들어박혀 음악적인 실험을 이어가는 사람들부터 클래식 음악가, 재즈, 록 음악가를 비롯해 음향 기사, 그리고 힙합, 하우스 뮤직, 테크노 등 전문적인 전자 음악가들에 이르기까지 전자 음악을 개발하고 즐기는 현재의 문화가 어떤 경로를 거쳐 구축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전자 음악이 이토록 대중적으로 확대된 것은 인간이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리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특별한 해석도 제시한다. 프랑스의 방송국 엔지니어였던 피에르 세페르, 미국의 아코디언 연주자이자 실험음악가 올리베로스, 수학 모델을 음악에 적용한 크세나키스, 영국의 음악가 브라이언 이노 등 전 세계 전자음악의 선구자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음악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테이프 녹음기
2. 회로
3. 턴테이블과 음반
4. 마이크
5.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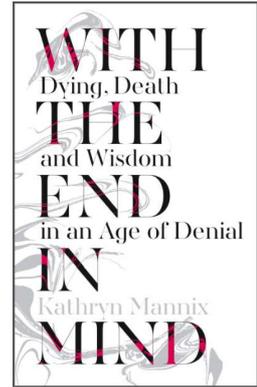
맺음말

추천 음악

<저자 소개>

대니얼 워너(Daniel Warner)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 햄프셔 칼리지의 음악 교수이자 작곡가, 전자 음악가이다. 전 세계 여러 페스티벌 등 행사에 음악을 제공하고 관련 장비의 설치를 지원해 왔다. 저서로는 공동 집필한 『Audio Culture: Readings in Modern Music』 (2004) 이 있다.

제목 : WITH THE END IN MIND  
가제 :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  
저자 : Kathryn Mannix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8년 1월 1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의학/에세이



- \* 중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브라질,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 30년 이상 죽음이 가까워오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온 의사가 전하는 삶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서의 죽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새로운 시각

일의 경중을 이야기할 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라는 말로 비유하듯,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대한 사건일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인생이 바뀌는 큰 변화를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순간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실제로 겪기 전에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본능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죽음’은 그 호기심 혹은 대비의 대상에서 점점 제외되는 양상을 보인다. 죽음을 입에 올리는 일이 더욱 금기시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와도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함께하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대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소설, 소셜미디어, 뉴스에 등장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혹은 가상의 인물이 겪는 죽음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하며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본능적인 호기심을 남몰래 충족시킨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영국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 죽음까지 생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환자들이 덜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해온 저자는 다양한 질병과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짐작만 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과정들,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점점 발달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이 마감되는 과정 또한 공통적인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제시된다.

한때는 집에서 병이 들거나 큰 사고를 당해 생사를 오가는 사람이 생기면 가족은 물론 가까운 이웃까지 곁을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자연스레 노화가 진행되어 신체적, 정신적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노인들도 곧 죽음을 맞이하리란 사실을 당사자도,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별의 순간을 준비했다. 저자는 의학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손 놓고 있어야만 했던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고 영양 수준의 발달과 백신으로 시작된 예방치료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러한 죽음과의 공존을 낫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잘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오래,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그

래서 끝까지 죽음을 외면하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훨씬 더 평화롭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죽음의 민낯, 생활의 일부로서의 죽음의 이야기를 직접 치료하고 만난 환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다. 생을 끝낼 준비를 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지인들과의 광범위한 대화를 통해 깨달은 삶과 죽음, 그 사이의 거대한 공간과 죽음에 깃들인 숭고한 아름다움을 따뜻하게 조명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라벨 정보

패턴

나의 길

죽음의 선언

지금 이후를 바라보다

유산

초월

마지막 말

<저자 소개>

캐스린 마닉스(Kathryn Mannix)는 30년 이상 말기 환자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일해 왔다.